

- **주요 뉴스:** 연준 주요 인사,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하나 인플레이션 억제 지속
 - 미중 정상회담, 양국 간 충돌 방지 및 관계 개선 등을 강조
 - ECB 부총재, 임금 상승이 시작.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낮은 수준
 - OPEC,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. 경기둔화 등을 반영
 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연준 월러 이사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0.9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상승[+6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금리인상 지속 전망 및 차익매물 출회 등이 원인
 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 기업의 양호한 실적 및 기술주 강세 등으로 0.1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.2%, 0.8% 하락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기조 유지 가능성 등이 배경
 독일은 ECB 파네타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1bp 하락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24.1원, -1.8원) 0.1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1/14일	11/11일	전일대비			11/14일	11/1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57.3	3,992.9	-0.89%	국채 금리 10y	미국	3.87%	3.81%	6bp
	유럽	432.86	432.26	0.14%		독일	2.15%	2.16%	-1bp
	중국	3,083.4	3,087.3	-0.13%		영국	3.37%	3.36%	1bp
	일본	27,963	28,264	-1.06%	CDS 5y	한국	53bp	56bp	-3bp
	한국	2,474.7	2,483.2	-0.34%		중국	75bp	79bp	-4bp
	달러지수	106.86	106.29	0.54%	위험 지표	EMBI+	-	425	-
환율	유로화	1.0330	1.0347	-0.16%		VIX	23.74	22.52	5.42%
	엔화	139.87	138.81	-0.76%		WTI유	85.87	88.96	-3.47%
	위안화	7.0690	7.0973	0.40%	원자재	구리	383.7	391.4	-1.97%
	원화	1,325.9	1,318.4	-0.57%		금	1,771.3	1,771.2	0.0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주요 인사,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하나 인플레이션 억제는 지속

-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조만간 금리인상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. 현 상황에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경로를 정확히 단언하는 것은 어려우며, 발표되는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제약적인 금리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
- 월러 이사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만, 이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약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. 10월 소비자물가가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, 이는 여러 정보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금리인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첨언
- 한편 뉴욕 연은 10월 설문조사에서 1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5.9%로 전월(5.4%) 대비 높은 수준. 3년 및 5년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(각각 2.9%→3.1%, 2.2%→2.4%). 이번 결과는 최근 휘발유 가격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
- 다만 골드만삭스는 공급 차질 완화, 임금 상승세 둔화, 주거비 상승세 정점 통과 등을 고려 시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. 구체적으로 현재 5.1% 수준인 근원 PCE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내년 12월에 2.9%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중 정상회담, 양국 간 충돌 방지 및 관계 개선 등을 강조. 대만 문제 등은 이견

-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충돌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언. 시진핑 주석 역시 양국 간 관계 증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. 다만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대만 문제를 지목
- 양측 모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서도 극단적 상황을 피하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긍정적(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Ja lan Chong)

■ IMF, 세계경제 전망은 10월에 비해 부정적

- 러-우 전쟁,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통화긴축 등이 세계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거론. 경제지표 악화는 향후 더 큰 도전에 직면해야 함을 의미

■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, 부채한도 확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

- 척 슈머 원내대표는 부채한도 확대 문제를 이번 회기에 매듭짓고 싶으며, 이는 초당적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. 최근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화당의 재정지출 축소 요구를 피하기 위해 12월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

■ ECB 부총재, 임금 상승이 시작.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낮은 수준

- 데 쿼도스 부총재는 임금이 마침내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ECB의 물가상승률 목표치(2%) 부근에서 추이하고 있다고 발언.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
- 파네타 이사는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하지만 과도한 긴축정책이 경기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. 계속해서 통화긴축으로 수요를 억제한다면 총생산이 영원히 장기 평균을 하회할 수 있다고 첨언

■ OPEC,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. 경기둔화 등을 반영

-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일일 255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. 이는 이전 전망에 비해 일일 10만배럴 줄어든 수준. 높은 인플레이션, 주요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

■ 일본은행 총재,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방침. 임금인상을 강조

- 구로다 총재는 임금인상이 동반된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발언. 임금이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었고 최근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은 구로다 총재에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(Itochu Economic Research Institute)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14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9월 산업생산(전월비): 0.9%, 8월(2.0%), 예상치(0.3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15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쿡 이사 강연,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및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
- 유로존 9월 무역수지 및 3/4분기 성장률, 독일 11월 ZEW 경기업황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의 기업투자 증가 예상, 연준의 고물가 억제를 어렵게 할 소지 - Financial Times (Capextravaganza)

- 최근 시장에서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확인된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이 증가. 하지만 향후 제조업 투자 및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의 현실화 여부는 불확실
- 먼저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등 전년도에 승인된 재정 부양책의 대부분은 앞으로 추진될 예정. 또한 유럽 제조기업들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미국 내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. 아울러 반도체 법안 등으로 거대 제조기업의 미국 내 공장설립이 증가. 리쇼어링 정책은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
-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기부양책 및 예상보다 강력한 기업투자로 인한 파급 효과 제어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

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안보 우선 정책, 기대와 상반되는 효과 초래할 가능성 - 블룸버그 (Xi Wants to Make China More Secure. He's Doing the Opposite)

-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에서 안보 강화를 강조. 하지만 효율보다 자급자족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중국을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하게 만들 소지
- 식량안보가 그 한 가지 예. 과거 마오쩌둥은 거의 완전한 식량자급률을 달성했지만, 이러한 과정에서 가난이 심화. 국영기업 의존 심화 및 실패도 문제
- 중국 지도자들은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고 세계경제와의 연결을 최대한 유지해야 하며, 보다 온건한 외교정책을 통해 일부 외부 위협을 축소할 필요

■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, 유동성 완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 - Financial Times (China property: sucker's rally is belied by savings cash piles)

- 중국 정책당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낮추기 위한 조치인 대출상환 기간 연장 등은 단기간 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,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미흡. 가계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으며, 신규주택판매는 큰 폭 감소
- 지역개발업체의 부채규모는 크고, 주요 은행의 부동산 부실대출은 빠르게 증가. 주택 관련 채무불이행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용도 역시 악화. 대규모 구제금융 기대에도 불구하고, 최근 정부의 조치는 일시적 효과를 얻는데 그칠 소지

■ G20, 글로벌 경제 안정 회복을 위해 안보 분야 등에서의 노력이 중요 - WSJ

(The G-20's To-Do List for Restoring Global Economic Stability)

- G20은 러·우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'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,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지라도 중국 등과의 대화를 통한 협력이 중요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
- ▲가장 취약한 곳에 대한 지원(가계 및 우크라이나), ▲식량 생산 및 유통의 무기화 중단, ▲에너지 안보 강화 및 러시아 의존도 축소, ▲세계 무역 개방 및 시장 보호, ▲지속 불가능한 대출에 의존하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 제공 등에 대한 액션 플랜은 경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고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는 보호 수단이 될 전망

■ 세계 증시, 낙관적 분위기 속에서 연준의 통화긴축에 유의할 필요 - The Economist

(Markets are suddenly exuberant. Are they right to be?)

-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고, 정책 금리 정점 예상치도 하향 조정. 특히 광범위한 근원 상품 가격의 하락세 등이 긍정적 신호로 인식
- 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냉각이 필요한데 노동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하며, 연준이 최근의 금융시장 움직임을 환영하지 않을 가능성
- 연준은 지나치게 빨리 통화정책을 완화했던 1970년대의 실수를 피하려 할 것이며, 이는 갑자기 낙관론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요소

■ FTX 사태,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대비 필요를 시사 - Financial Times

(Higher rates (and hubris) killed FTX)

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, 인플레이션 제어를 중단하기에는 시기상조 - 블룸버그

(Central Banks Get a Breather But Can't Afford to Rest)

■ 독일의 에너지 위기, 소비 감소 및 저장목표 달성 등으로 완화될 소지 - Financial Times

(Germany's gas problem maybe isn't such a big problem any more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